



##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1. 배터리를 중심으로 친환경 테마의 강세

- 지난 주 후반 배터리를 중심으로 친환경 테마주들의 강세 현상이 나타남. 관련된 긍정적인 소재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음.
- CES에서도 모빌리티가 올해의 화두 중 한가지로 제시되고 있으며, 그 동력원으로써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가 핵심
- 203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2018년 대비 연평균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 조사 기관들의 전망도 제시

### 2. 테슬라의 약진 등 긍정적인 소재들이 다수 등장

- 순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약진을 거듭하며 포드와 GM의 합산 시총을 넘어서는 상징적 모습도 등장
- 순수 전기차 도입에 미온적이었던 도요타는 고급 브랜드 렉서스에 전기차 모델을 도입하고 보급 대수를 늘려가려는 목표치를 제시
- 전기차와 배터리라는 부문에서 먼저 관심이 나타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같은 현상의 기저에는 강화되고 있는 주요국의 환경 규제가 존재

### 3. 친환경 테마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제언

- 유럽 지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2020년을 전후로 한 환경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 글로벌 금융시장 역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린 본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친환경 테마 ETF에 대한 자금 유입도 강화
- 시기적으로 세부 산업별 퍼포먼스 차이는 있겠지만 환경 보호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의지가 강화되고 글로벌 금융시장 내 관심 기류가 형성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친환경 테마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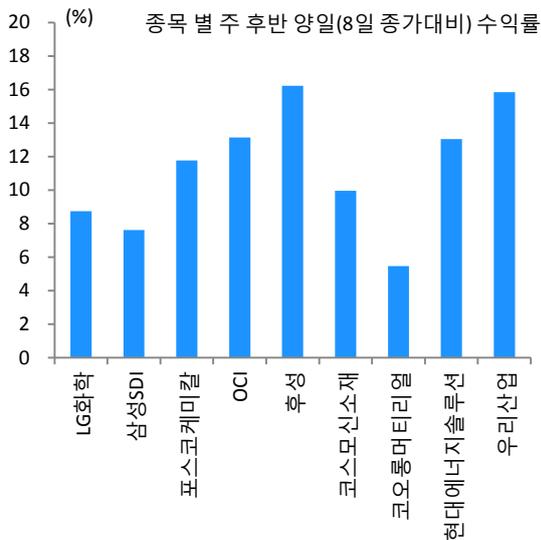
주식시장 투자전략

1. 배터리를 중심으로 친환경 테마의 강세

지난 주 후반 전기차(배터리, 수소) 테마가 눈에 띄는 퍼포먼스를 연출한 바 있다. 초대형주 가운데서는 삼성SDI, LG화학 등이 KOSPI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하 규모의 종목들 가운데서도 포스코케미칼, 우리산업, 후성 등이 주 후반 급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 같은 흐름은 긍정적인 뉴스와 전망치 등 긍정적인 소재들이 다수 등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하다. 전기차와 배터리가 중심이었지만, 기타 친환경 성격의 종목들에서도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찾아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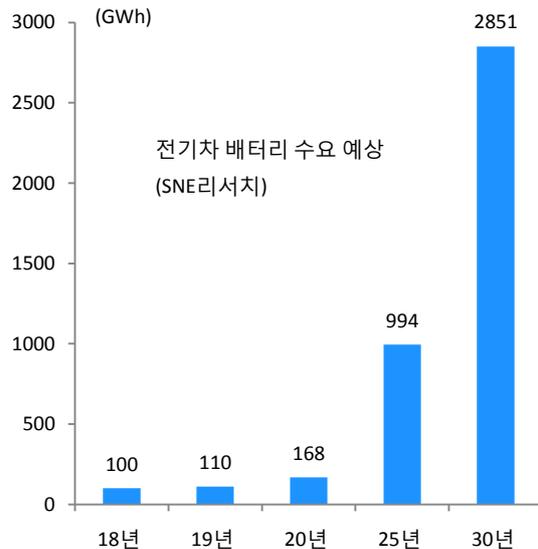
일단 전기차/배터리 부문에 먼저 집중해 보자. 실제로 최근 전해지는 뉴스들을 정리하다 보면 이 같은 움직임들을 뒷받침할 만한 소재들이 꽤 자주 눈에 띄고 있다. 매년 연초 진행되는 세계 최대 가전 및 IT 전시회 CES의 경우 올해 핵심 컨셉 중 한가지가 'Mobility'였다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모빌리티의 동력원은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가 핵심이 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또, 에너지 시장 조사 업체인 SNE는 최근 2018년 100 GWh 수준이었던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2020년 168 GWh까지 증가하고 2030년에는 2,851GWh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추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연평균 +30%대 이상의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다.

[차트1] 지난 주 후반 배터리 업체들을 중심으로 친환경 테마 관련주들이 가파른 상승세를 시현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관련 연구 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2030년까지 배터리 시장은 연평균 +30%이상 속도로 성장 전망



자료: 언론보도 재인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 2. 테슬라의 약진 등 긍정적인 소재들이 다수 등장

개별 기업의 움직임 중에도 전기차와 배터리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제고시키는 소재가 있었다.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 중 하나인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 최근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급등세를 이어왔다. 그리고 지난 주,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메이커 GM과 포드의 합산 시총을 넘어서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지난 주 등장한 뉴스 중에는 도요타 자동차에 대한 뉴스도 있었는데, 그간 하이브리드카를 고집하던 도요타자동차가 올해 순수 전기자동차를 처음 내놓으며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다. 9일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는 렉서스의 소형SUV 전기차 모델 UX 300e를 중국과 유럽에 출시할 계획이다. 또, 25년까지 전기차 라인업을 10종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간 전기차 판매 목표를 50만 대로 제시했다. 기타 글로벌 업체들에 비해 큰 목표량은 아니지만, 완고했던 도요타의 태도 변화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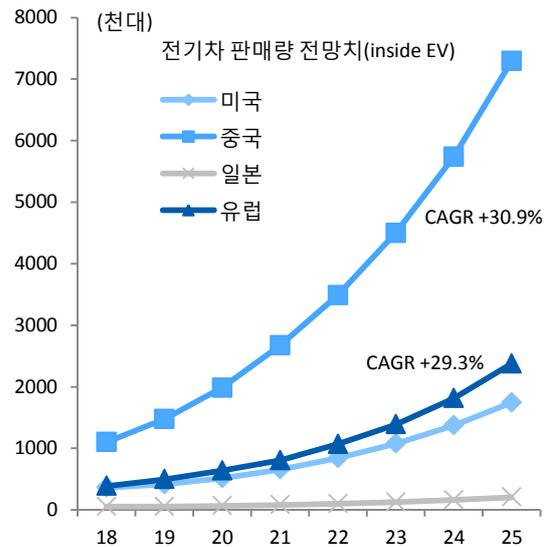
그리고 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 같은 태도 변화의 이유가 기존의 전략으로는 유럽이나 중국의 강화되고 있는 온실가스 규정과 같은 환경 규제에 대응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전기차와 배터리 부문에 대한 관심을 살펴 봤는데, 결국 이 같은 흐름과 관심의 기저에는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가 자리잡고 있다.

**[차트3]** 순수 전기차의 대표 종목인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지난 주 전통적 자동차 메이커들의 시가 총액을 넘어선 모습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전망. 이는 강화된 환경규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자료: 언론보도 재인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 3. 친환경 테마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제언

환경을 위한 제도적 접근에 가장 선도적인 지역은 유럽이다. 2018년 이후 부진했던 독일의 경제도 환경 규제의 영향이 컸다. 유럽의 강화되는 환경 규제 중 하나가 CO<sub>2</sub> 배출 배출량 가격제이다. 지난 9월 독일 정부는 탄소배출량 가격제가 포함된 ‘기후법안 패키지’를 발표했으며, 12월 의회에서는 21년부터 시행되는 교통과 난방에 대한 CO<sub>2</sub> 배출 가격을 결정했다. 기존 제안된 톤당 10유로에서 25유로로 2.5배 인상됐다. 25년에는 55유로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산업부문은 배출권 거래제가 기 적용되어 왔지만, 교통, 난방 부문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아직 미국이 미온적인 태도지만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주요국 정부들의 친환경 정책 적용은 본격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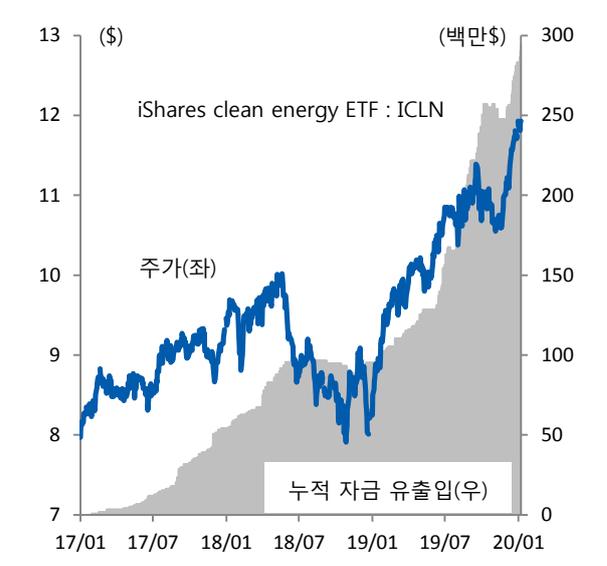
이 같은 흐름 하에서 금융시장 역시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형성되고 있다. ECB가 QE 과정에서 그린 본드를 활용할 것을 제언할 만큼 그린 본드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친환경 ETF에 대한 관심도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세부 산업 별 퍼포먼스 차이가 형성될 수 있겠지만, 환경 보호에 대한 주요국 정부의 의지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심이 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친환경 테마에 대한 관심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폭넓게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차트5]** 주요 경제권 및 국제기구에서 다수의 환경 관련 규제/지원책 등이 현 시점을 전후로 실시 될 예정

지역	법안	내용
세계	IMO2020	선박 연료 황 비중 3.5%→0.5% (20년)
EU	자동차 CO <sub>2</sub> 허용량 규제	CO <sub>2</sub> 허용량(g/Km) 130→95 (20년)
	탄소 국경세	탄소배출 관련 규제 미비 국가에 관세 부과. (21년)
독일	교통/난방 탄소배출량 가격제	21년부터 톤당 25유로 25년 55유로까지 확대
중국	China 6A 배기가스규제 전국확대	CO <sub>2</sub> 허용량(g/Km) 70 / Nox 허용량(g/Km) 6 등 적용 (20년 하반기)
한국	온실가스 규제 강화	CO <sub>2</sub> 허용량(g/Km) 110→97 (20년)

자료: 언론보도 및 각국 발표자료 취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글로벌 청정에너지 사업에 폭넓게 투자하는 친환경 ETF 에도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음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